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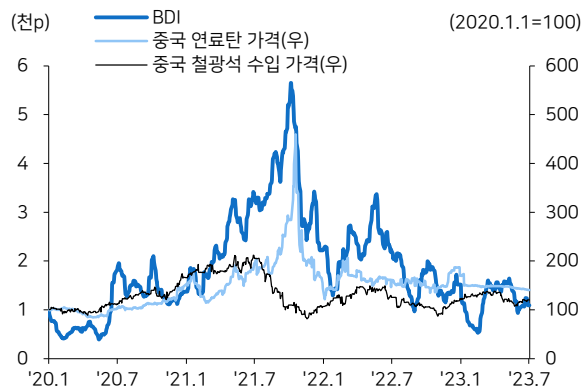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3. 7. 6 (목)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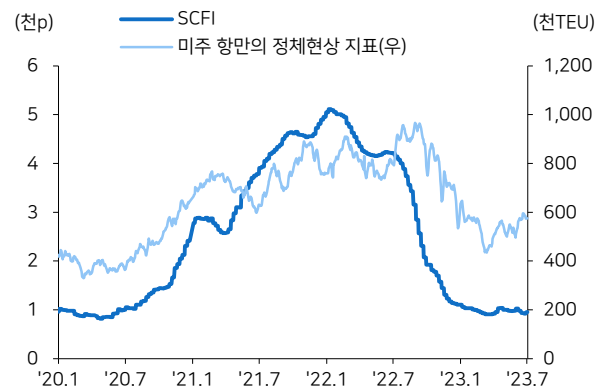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994.0p(-5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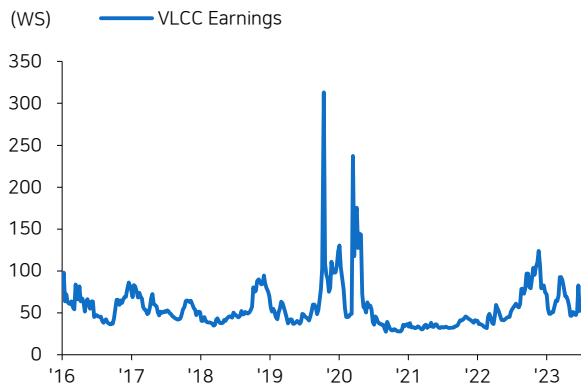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53.6p(+29.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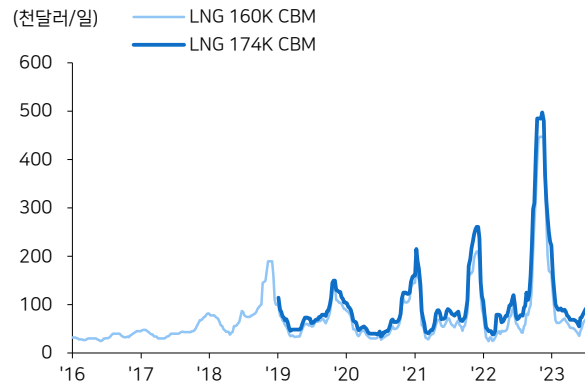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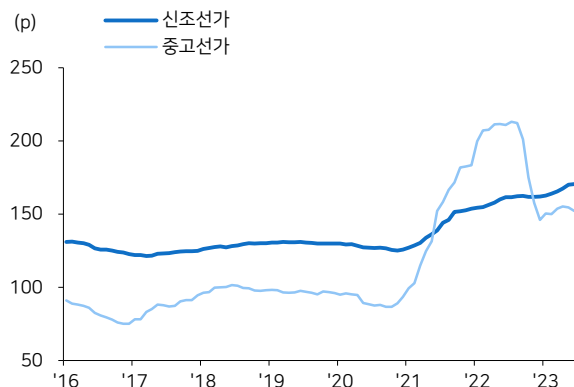
54.0p(+1.7p WoW)



LNG Spot 운임

69.3천달러(+3.0천달러 WoW)
92.0천달러(+7.0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70.9p(+0.0p WoW)
152.1p(-0.0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563.0달러(-3.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미포조선, LPG운반선 1척 수주...969억 규모

현대미포조선이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LPG선을 1척 수주했다고 보도됨. 선가는 969억원으로 약 7,397만달러 수준임. 2026년 10월까지 인도될 예정임. (이데일리) (<https://shorturl.at/juzBJ>)

HD현대중 vs 한화오션, 8,300억원 규모 차기호위함 수주 7월 결판

방사청이 7월 중순쯤 울산급 배치 3·5·6번함 건조 사업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보도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8,334억원 규모 총 6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해당 사업에 입찰했다고 알려짐. 앞서 1번 선도함은 HD현대중공업이, 2~4번함은 SK오션플랜트가, 한화오션은 배치2에서 호위함 8척 중 4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짐. (머니s)

(<https://shorturl.at/wTZ38>)

Russia dismisses 'Western propaganda' aimed at saving Black Sea grain deal

러시아가 7월 17일 만료되는 흑해곡물협정을 재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됨. 러시아는 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협정에 적용을 받는 모든 선박이 흑해를 떠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ttps://shorturl.at/eCTX3>)

Russia dismisses 'Western propaganda' aimed at saving Black Sea grain deal

중국 철광석 수요 둔화에 따른 철강가격 약세에 BDI가 한달사이 처음으로 1,000p아래로 하락했다고 보도됨. 수요일(5일) 4.8% 하락해 994p에 도달했다고 알려짐. Capesize 5TC가 10.7% 하락하며 Capesize 선형 하락세가 가장 컸다고 알려짐. 중국 경기 부진이 낮은 철강 가격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짐. 중국 제철소들은 6월 중순부터 생산량을 늘렸지만, 기타 국가들의 철강 생산량은 낮은 수준으로 철광석 수요가 적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shorturl.at/dsBFK>)

MR tanker spot rates down 35% in 2023 but shipowners keep faith in fundamentals

MR탱커 spot운임이 연초대비 35% 하락했지만 패닉할 필요는 없다고 보도됨. 6월 평균 운임은 16,100달러/일로 2022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알려짐. 그러나 1) 낮은 수주잔고, 2) 교역 제재 효과 지속, 3)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하반기 및 2024~25년은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언급됨. 또,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교역량을 줄이며 정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shorturl.at/kCQ49>)

LNG carrier newbuilding orders keep rolling in with busy second half envisaged

2023년 상반기에만 최소 34척의 LNG선박이 약 90억달러 수준에 발주되었는데, 하반기에도 추가 발주가 있을 전망으로 보도됨. 중국에 발주된 6척 외에는 대부분 한국 조선소에 발주되었다고 알려짐. 선가는 연초 2.5억달러에서 최근 2.6억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알려짐. 하반기에는 QatarEnergy의 약 40척 발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일부는 2024년에 발주될 수도 있다고 언급됨. Mozambique 프로젝트 17척 발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shorturl.at/rAQTV>)